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호남 신혼부부 연평균 소득 5700만원



전국에서 가장 바쁜 호남 엄마 아빠들

지난해 기준 맞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제주(62.2%)·전남(58.1%)·전북(56.6%)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48%)을 훌쩍 웃도는 수치에 '열심히 사는 지역'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면에는 외벌이로는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분석이다. 호남지역 신혼부부 연평균 소득은 5700만원으로 전국 평균 69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생활물가 부담 등을 원인으로 호남의 높은 맞벌이 비율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시민들은 "외벌이로는 가게 유지 어렵습니다", "지방에선 전업주부 보기 힘들어요", "지역 맞춤형 돌봄·육아 정책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年 25만원'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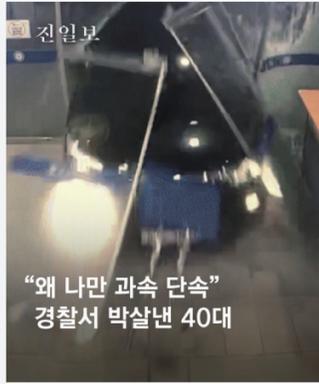
오직 전남 청년만 25만원 드립니다

전국 최초 소득기준 없이 전남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받을 수 있는 '청년 문화복지카드'가 돌아왔다. 전남도청은 전남청년의 문화·자기개발 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연 25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은 6월까지다. 청년 문화복지카드는 1997~2006년 출생자 중 전남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점 기준 전남 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며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카드는 올해까지 도내 공연 관람, 도서 구입, 학원 수강, 체육시설 이용, 여행 및 문화·복지 관련 업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거주자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서, 이외 전남 17개 군 거주자는 농협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을 12번 과속 적발에 분노" 차 몰고 경찰서 들진



"왜 나만 과속 단속" 경찰서 박살낸 40대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께 전남 순천경찰서에 40대 남성 A씨가 SUV를 몰고 정문을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유리창과 내부 벽이 파손됐다. 올해 12건의 과속 단속에 적발된 A씨는 "나만 단속되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고 무면허도 아니었지만 특수건조물 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고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A씨의 행동은 단순 '분노 표출'을 넘어 공공안전 위협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운행



테슬라 로보택시 출발합니다

테슬라가 지난 23일 미국텍사스오스틴에서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모델Y)'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가 10년간 개발한 '완전 자율주행(FSD)' 기술이 탑재됐는데, 이용 요금은 약 5800원으로 앱 호출이 가능하다. 로보택시는 운전사 없이 카메라와 AI 기술로 도로를 실시간 인식해 주행한다. 웨이모(구글)는 사전 제작 지도를 이용하지만, 테슬라는 지도 없이도 즉각적 주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미래의 핵심 수익 모델로 판단하고 있는데, 개인 차량을 택시처럼 공유해 수익을 내는 '차량판 에어비앤비'를 구상, 모빌리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올해 말 미국 전역으로 확장해 내년에는 완전 무인 차량 수백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300 주황색과 자연

주황색은 미각 촉진



●색채와 식물

미국 농무부(USDA) 식품조사부(食品調査部)에 의하면, 광선은 물건을 상하게 하는 촉매작용(기름기가 있는 식품의 부패)을 한다. 미국 토양화학국(土壤化學局)의 조사에서는 광선의 파장을 흡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컬러필터(color filter)를 쓴 결과 스펙트럼(spectrum)의 영역에서 방사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스펙트럼의 자외선은 부패 촉매작용이 가장 적고, 다음으로는 스펙트럼의 보라 남색 그리고 파랑이 그 뒤를 잇는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파랑보다 노랑과 주황 그리고 빨강의 파장을 사용했을 때 2배의 조사량(照射量)이 필요하다. 이 색(노랑과 주황 그리고 빨강)들이 더 많이 부패시켰다.

랑(Rand, Gertrude)은 페리(Ferree)와 함께 쓴 논문인 '눈의 위생과 빛'에서 조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조명의 밝기는 시각 조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 이런 견지에서 시야의 빛이 고르게 분배되고, 극단적으로 밝은 면이 존재하지 않은 한 눈은 조명의 밝기와 무관하다. 명확히 볼 수 있는 능력은 조명의 색이 파란빛에 접근할수록 점점 더 감소한다. 가장 명확하게, 가장 빠르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은 스펙트럼의 중간 범위에 있는 노란색 빛, 귤색 빛, 연두색 빛 파장을 받을 때 생겨난다.

●색채와 음식

일반적으로 난색계통은 단맛과 관계가 있으며, 주황색은 미각을 촉진시킨다. 단맛은 빨간 기미의 주황색과 빨간 기미의 노란색을 말한다. 특 쏘는 듯한 냄새의 색은 주황색(오렌지)이다. 식품의 인상으로, 복숭아색은 달고 부드러움을 준다. 비렌(Birren, F.)은 식당에서 식욕을 돋우는 대표

적인 색으로 주황을 꼽았다.

1878년 색채 화가인 에드윈 배빗(Edwin D. Babbit)은 그의 저서에서 색채와 과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주황색과 복숭아색은 미각을 자극한다. 또한 반 고흐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황으로 그렸다.

귤색은 영양분이 있는, 지나치게 진한, 달다, 맛있는 인상을 준다. 탁한 귤색은 딱딱한, 오래된, 따뜻한을 준다. 과일 오렌지는 인도가 원산지로 '나랑(nareng)'이라고 불렀고, 아라비아로 건너와서는 '나랑(narang)'으로 불렸다. 아라비아 오렌지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으로 건너왔으며, 프랑스에서 재배되었다. 오렌지는 다산을 상징하는데, 꽃이 피는 동시에 열매를 맺는 특이한 식물이기 때문이다.

주황색의 당근은 조직을 청결하게 조화시키며, 새로운 조직 생성을 도와준다. 당근처럼 분명한 주황을 '빨간 무'라고 한다. 주황은 맛있는 색이다. 주황 소스는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당근, 망고, 바닷가재, 복숭아, 빨간 캐비어, 살구, 새우, 셀러드드레싱, 소시지, 연어, 콘프레이크 등의 많은 식품이 주황이고, 먹을 수 있는 호박꽃도 밝은 주황색이다. 치즈의 껍질은 빨강을 띤 주황색이 있으나 노랑을 띤 주황색이 더 많다.

햇빛과 색채를 몸에 섭취시켜 주는 것이 음식이다. 음식은 색이 강하면 강할수록 몸에 좋으며, 색채를 농축시킬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의 함유량도 높여준다. 음식물에는 수많은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타민의 종류는 색상과 일정한 상호 관계가 있다. 비타민 B1과 B2는 B6는 빨강과 주황의 색채 속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